

한라포커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그 후(중)

“왜 우리만?... 매장 반발 여전

제도 시행 두 달 넘어... 대상 매장 41% '미이행'
“법안 핵심은 재활용인데 제도 시행 초점 맞춘 풀”
‘라벨지 방식’ 등 불만 커... 행정, 동참 유도 고심



제주시 아라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 현수막이 걸려있다.

“길 건너 저 카페도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보증금 300원을 받으면 어떡했어요.” 제주에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고모(56) 씨가 가게 맞은편 매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매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이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고 씨는 “처음에는 해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일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가 수요 조사를 할 당시만 해도 참여 의사를 밝혔었다.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지원한다는 무인간이회수기도 보급 받았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담 탓에 결국엔 보이콧했다.

고 씨는 “제주 전체가 아닌 체인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 음료 값이 오른 것으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을 회수해 세척, 보관하는 일도 늘게 된다. 결국 한 사람의 인건비가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에만 부담”... 운영 방식 개선 요구=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

이 못하는 다른 매장의 입장도 비슷하다.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물을 올리자는 데에 공감하는 쪽도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특히 제도 시행 전부터 지적된 ‘라벨지 부착’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불만이 크다.

현재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선 일회용컵마다 일련번호(바코드)가 찍힌 ‘라벨지’를 붙여 고객에 제공하고 있다. 일종의 보증금을 냈다는 표시인데, 이 바코드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행 매장에 라벨 구입비와 라벨 디스펜서(부착기), 일회용컵 간이 회수기를 비롯해 보증금 카드 수수료, 표준용기 처리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뚜렷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정훈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대표는 “라벨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이는 것부터 일회용컵을 회수하는 것까지 매장이 주로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이회수기 1대당 비용이 100만원 정도라는데, 지금의 ‘라벨지 방식’으로 전국 시행이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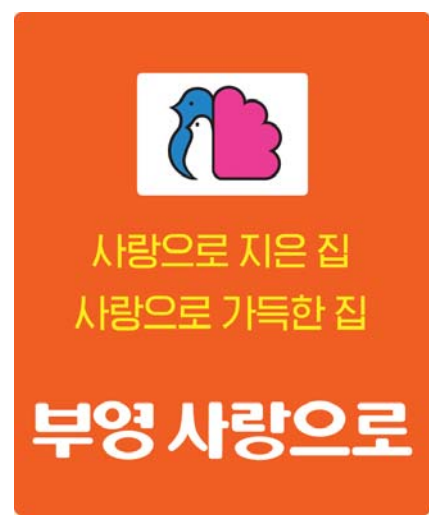
그러면서 “당초 법안의 핵심은 일회용컵을 덜 쓰고 더 재활용하자는 건데 지금은 단순히 제도 시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를 통해 일회용컵 생산 단계부터 비용 부담을 지도록 하고, 공공 회수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갖춰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이행 매장 동참 촉구... 이행 매장엔 지원 늘릴 것”=이 같은 문제가 맞물리면서 도내 대상 매장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67곳인데, 이중 59%인 275곳(다회용컵 118곳, 일회용컵 157곳)만 참여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나머지 192곳(41%)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와 제주도의 고심도 깊다.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과 영세한 매장 사정을 감안해 단속보단 제도를 통해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되레 이행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매장의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여기가 학꽂치 포인트” 15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가문동 포구에서 강태공들이 학꽂치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교육공론화위 3호 의제 ‘언제쯤’

1년 넘게 가동 중단... 지난해 조례 개정 교육감도 의제 제안 가능

1년 넘게 가동을 멈추고 있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공모 위원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3호 의제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위한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설치됐다. 공론화위 1호 의제는 ‘편안한 교복’이었고, 2호 의제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이었다.

공론화위는 제주 교육행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은 전무

하다. 2021년 8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추진 종료로 발표된 이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 활성화를 취지로 지난해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감은 속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에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할 것으로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공약한 ‘미래교육소통위원회’

를 두고 기존 공론화위와 기능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1월 제정된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조례엔 그 기능으로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 토론, 의견 청취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호 의제 이후 청구된 사안이 없어 공론화위를 운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론화위와 미래교육소통위는 목적이 다르다. 미래교육소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 의제로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하지 말라”

학생 심리치료 지원 확대
치료 대상·지원규모 늘려

제주청소년기후평화운동
어제 日 총영사관 앞 회견

지난 13일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던 제주청소년기후평화운동(이하 평화운동) 청소년들이 일본총영사관을 찾아 핵오염수 투기 철폐를 요구했다.

평화운동 관계자들은 15일 제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언제

까지 문제가 없다는 거짓 변명만 늘어놓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제주의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계획을 밀어붙일 생각이나”고 비판했다.

평화운동은 “일본은 125만t의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안전하게 방류하겠다’라는 터무니없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지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인류 모두가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대상을 유치원 유아까지 포함하고 지원액도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유아, 초·중·고 재학생은 물론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해당된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액은 1인당 연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까지다. 진선희기자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 신년하례회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와 신년하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 18:30
장소 | 메종글래드호텔 1층 (컨벤션홀)

○ 회의순서 : |1부 이사회 및 정기총회 |2부 신년하례회 |3부 만찬
※ 1부 회의참석 : 18:20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대상 : 제주대학교 동문

○ 회 비 : 참가회비 없음

○ 연 락 처 : 사무총장 문경국 010-3869-9644 사무처 : T.702-3466 F.758-9262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임원명단	
고 문	김창진, 김태환, 고유봉, 오영훈, 김광수
자문위원	김형욱, 부만근, 허향진, 송석연, 김경학, 위성곤, 김우남, 김창희
회 장	강지용
상임부회장	양석후
부 회 장 (출입회기순)	최승훈, 고창근, 김동우, 송상훈, 강승진, 임문범, 김관배, 김철균, 한상엽, 오태길, 고봉주, 현유홍, 윤창완, 고영호, 고관진, 장윤석, 고경민, 변대근, 이인철, 현홍민, 김근선, 장병익, 김성훈, 김상훈, 강용덕, 한정중, 문종철, 김한상, 한봉심, 김남식, 양재수, 백희순, 김영생, 김형주, 홍성범, 박용모, 강정심, 강기오, 김배열
감 사 (출입회기순)	윤두호, 김민국, 이택관, 부영석, 박형욱
상임이사 (학과동문회장·단과대학순)	강문중, 고형권, 홍태욱, 최철식, 이상현, 유상무, 정성중, 김 철, 강정석, 고성범, 정선태, 오영익, 고혁수, 이창홍, 양홍식, 류성필, 양세훈, 강성철, 한정관, 김민찬, 김민호, 부석용, 김명석, 강동훈, 고이권, 이남협, 강윤희, 김현철, 강기오
사무총장	문경국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 강지용